

全面施文 沈線文土器文化의 展開와 編年

李 東 注*

목 차

- | | |
|---------------|------------------|
| I. 머리말 | 2. 南海岸地域 |
| II. 問題의 提起 | 3. 東海岸地域 |
| III. 絶對年代의 檢討 | IV. 沈線文土器 文化의 展開 |
| 1. 西海岸地域 | V. 맺음말 |

I. 머리말

우리나라 新石器時代 編年問題에 있어서 南海岸地方을 中心으로 하는 相對編年의 基準은 어느 정도 整理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絶對年代와 關聯하여 西海岸地方을 비롯한 그 외 地域과의 關係나 他地域에서의 細部的인 型式分類, 性格, 編年問題에 대해서는 여전히 曖昧한 감이 없지 않다.

沈線文土器는 過去, 櫛目文土器¹⁾, 櫛文土器²⁾, 빗살무늬土器³⁾, 또는 幾何文土器⁴⁾ 등으로 불리던 것인데, 끝이 뾰족하거나 무늬 施文具로 文樣을 새긴 것을 말한다⁵⁾. 이러한 沈線文 技法이 土器에 나타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新石器文化 중 가장 이른 時期의 隆起文土器 段階에서부터 가장 늦은 段階인 二重口緣土器段階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時期에 걸쳐 使用되고 있기 때문에 單純히 技法 自體만으로 特定 文化段階를 設定하기에는 無理가 따른다⁶⁾.

* 東亞大學校 博物館 研究員

1) 藤田亮策, 1930. 「朝鮮櫛目文土器의 分布に就きて」 『靑丘學叢』 2.

2) 金元龍, 1973. 『韓國考古學開設』 (서울:一志社)

3) 도유호·황기덕, 1961. 『지탑리원시유적발굴보고』 (과학원출판사).

4) 金廷鶴, 1968. 「韓國幾何文土器文化의 研究」 『白山學報』.

5) 櫛(目)文土器 혹은 櫛(目)文土器文化라는 名稱은 新石器時代 土器文化를 總稱하는 概念으로도 使用되고 있는데, 筆者는 이를 有文土器, 또는 有文土器文化라고 부른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先史時代에 土器가 登場하는 것은 靑銅器時代와 新石器時代로 區分되고, 그 중 靑銅器時代 土器는 文樣이 없는 것을 特徵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를 無文土器文化라고 通用되고 있다. 이에 반하여 新石器時代는 土器의 表面에 多樣한 文樣이 施文되는 特徵이 있으므로, 無文土器에 對應하는 概念으로 有文土器라고 부르는 것이 妥當하리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沈線文土器文化라고 하는 것은 沈線文樣 技法이 中心이 되는 것으로, 器形의으로는 底部의 形態가 豊富한 것을 말한다. 주로 서울 岩沙洞遺蹟이나 金海 水佳里遺蹟 出土 有文土器와 같은 것을 말하는데, 이 중 全面施文土器의 경우는 口緣部에서 底部까지 文樣帶가 2~3部分으로 區分되어 있으며, 上段에는 押引系의 短斜集線文이 가장 많고 그 외 格子文이 施文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며, 中段에는 鋸齒狀 또는 圓卷狀의 刺突押引文이나 格子文들이, 그리고 下段에는 魚骨文이 施文되어 있는 特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形態와 技法을 가진 土器는 沈線文土器 段階 중 가장 이른 型式으로 設定되어 있고 東海岸과 西海岸, 南海岸地方에서 共通의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土器文化의 編年的 位置를 살펴보고 地域的 特徵과 相互關係를 檢討한다면 우리나라 新石器文化의 系統的인 發展過程을 理解하고 지금까지 나타나고 있는 新石器文化의 編年的인 基準設定이 明確해지지 않을까 생각된다. 따라서 지금까지 이 分野 研究에서 나타났던 諸般 問題點들을 살펴보고 見解를 밝히고자 한다.

II. 問題의 提起

지금까지 沈線文土器는 漢江과 大同江流域을 中心으로 한 發生한 文化가 西海岸地方에서 南海岸地域으로 傳播된 것으로 누구나 認定하고 있다. 그 原流에 대해서는 過去, 시베리아를 包含하는 北方地域과 關聯이 있을 것으로 認定되기도 하였으나⁷⁾ 淸川江 以北地域이 平底土器 文化圈이고 시베리아地域의 土器와는 胎土, 色, 施文法 等 特徵上 差異가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自體 發生的 側面을 보이거나⁸⁾, 또는 結論을 留保하고 있는 實情이다.

6) 金海 水佳里貝塚 發掘 以後 우리나라 新石器時代 有文土器는 施文技法에 따라 編年的 差異가 나타나고 있다는 崔鍾圭先生의 碩士學位論文을 그대로 引用하고 隆起文-押引文-沈線文土器로의 變遷 段階를 設定하고 지금까지 通用되어 오고 있다. 여기에 대하여 沈線文樣은 格子文을 中心으로 隆起文土器 段階부터 發生하여 附加文樣으로 使用되었고, 이러한 技法은 押引文土器 段階까지도 部分的으로 계속 使用되다 그 다음 段階인 沈線文土器 段階로 이어진 것이며, 단순히 沈線文樣이 隆起文이나 押引文土器 段階에 나타나고 있다고 하여 西海岸式 沈線文土器의 影響을 받았다거나 늦은 時期의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見解를 밝힌 바 있다. 格子文과 같은 沈線文樣은 10,000年 以前의 것으로 보고 있는 日本 繩文文化 草創期 遺蹟에서도 종종 나타나고 있는 要素이다. 따라서 施文技法에 의한 編年은 넓은 意味에서 認識되어야 할 것이다.

崔鍾圭, 1977. 『幾何文土器의 編年表 作成을 爲한 一小考』 (釜山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李東注, 1993. 『欲知島貝塚 出土 有文土器에 대한 研究』 『韓·日 新石器文化의 諸問題』 (第7回 釜山-九州考古學 共同研究會 發表論文集).

李東注, 1994. 『동아시아에 있어서 韓國의 初期 新石器文化에 대하여』 『동아시아의 新石器文化』 (文化財研究所 國制學術大晦 發表 論文集) 2.

7) 藤田亮策, 1930. 『櫛目文樣土器의 分布に就いて』 『靑丘學叢』 2.

橫山將三郎, 1933. 『釜山府絶影島東三洞貝塚調査報告』 『史前學雜誌』 5-4.

8) 金元龍, 1981. 『韓國考古學概說(改訂新版)』 (서울:一志社).

最近에는 東海岸地域 鰲山里遺蹟의 發掘成果를 토대로 西海岸地域의 沈線文土器文化는 西海岸地域에서 南漢江을 따라 南海岸으로 傳播된 것이 아니라, 東海岸地域을 따라 南海岸地域으로 直接 影響을 끼쳤을 것으로 보는⁹⁾ 積極的인 見解도 있다¹⁰⁾.

이러한 特徵的인 沈線文樣의 土器는 아주 發達된 形態로 岩沙洞遺蹟이나 智塔里遺蹟과 같은 西海岸地域에서 突然히 出現하고 있는데, 그 文化가 어디에서 왔거나 어떠한 文化에서 發展되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現在 거의 論議가 없는 實情이다. 그 理由는 이른 時期부터 確認된 漢江流域이나 發見이 比較的 容易한 南海岸地域의 貝塚遺蹟과 같이 地域的 調查의 偏重에 따른 資料蓄積의 不足에서 起因하는 것이라 할 수 있지만, 이러한 過程이 定立될 때 비로소 우리나라 新石器文化의 體系的이고 系統的인 發展過程을 理解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 한가지의 問題點으로 이러한 沈線文土器의 編年的 觀點이 地域에 따라 顯著한 差異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우리나라의 有文土器文化는 前期-中期-後期の 3段階¹¹⁾, 또는 前期 以前 段階로 隆起 文土器를 中心으로 하는 早期段階를 追加하여 4段階로 時期區分이 이루어지고 있는데¹²⁾, 이 중 西海岸地域의 全面施文 沈線文土器는 前期 段階에 編年되고 있으며¹³⁾, 南海岸의 경우는 同一型式임에도 中期段階로 編年되고 있다.

이러한 同一系統의 土器가 地域에 따라 時期幅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根本的인 原因은 炭素年代 測定 結果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過去, 岩沙洞遺蹟 住居址 調查에서 나타났던 絶對年代로 보아 가장 이른 時期의 것인 6,230 B.P.의 年代 測定値가 있고¹⁴⁾, 南海岸遺蹟의 경우에는 上老大島貝塚 10層 중 第V層에서 6,430 B.P.의 測定値가 있다¹⁵⁾. 대체로 비슷한 年代를 나타내고 있는데, 南海岸에서는 層位的으로 隆起文土器-押引文土器-沈線文土器의 順序로 堆積되어 있고 層位的으로도 심한

9) 橫山將三郎은 過去 東三洞貝塚 調查報告에서 우리나라의 櫛文土器는 시베리아에서 沿海州를 거쳐 東北地方에서 南海岸地方으로, 그리고 南海岸에서 西海岸地方으로 傳播되었을 것이라는 見解를 밝힌 바 있다.

橫山將三郎, 1933. 『釜山府絶影島東三洞貝塚調查報告』 『史前學雜誌』 5-4.

10) 宋銀淑, 1991. 『韓國 南海岸地域 新石器文化에 대한 考察』 (서울大學敎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1) 崔鍾圭, 1977. 『幾何文土器 編年表 作成을 爲한 一小考』 (釜山大學校 碩士學位論文).

任孝宰, 1986. 「編年」 『韓國史論』 12, (韓國의 考古學 I · 下: 國史編纂委員會).

12) 鄭澄元·林孝澤·申敬澈, 1981. 『金海水佳里貝塚』 I (釜山大學校 博物館).

13) 北韓의 學界에서도 우리나라 新石器文化를 前, 中, 後期の 3段階로 區分하고 그 중 全面施文 沈線文土器 段階인 智塔里 1期와 岩沙洞 1期를 前期에 包含시키고 있는데, 그 年代는 紀元前 6,000年紀부터 紀元前 5,000年紀까지로 보고 있다.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1. 『조선전사』 1, (원시편).

14) 樹輪補正年代는 5,280~5,050 B.C.로 나타나고 있다.

任孝宰, 1986. 「編年」 『韓國史論』 12, (韓國의 考古學 I · 下: 國史編纂委員會).

아마도 北韓에서 全面施文 沈線文土器의 年代를 紀元前 6,000年紀로 보고 있는 것도 이러한 研究結果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15) 손보기, 1982. 『상노대도의 선사시대 살림』 (서울:수서원).

攪亂現狀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어느 特定時期의 土器年代라고 確定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그런데 沈線文土器 단일 遺蹟으로 알려진 金海 水佳里貝塚 調査時 第1文化層으로 區分된 第V層에서 4,510 B.P.의 年代測定 結果가 나타났기 때문에¹⁶⁾, 이 時期에 西海岸式 沈線文土器가 南海岸으로 傳播된 것으로 把握되었다. 따라서 自然히 上老島遺蹟과 같이 이른 年代는 가장 下層期에 속하는 隆起文土器의 것으로 보는 것이 一般的인 見解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이러한 觀點에도 여러 가지 疑問點들이 內包되어 있다. 즉, 同一型式의 土器가 西海岸地域과 南海岸地域과는 무려 1,500年 以上の 年代差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정도로 長期間동안 한 地域內에서 별다른 型式의 變化없이 存續하였다가 갑자기 南海岸地方으로 影響을 미칠 수 있었을까 하는 점과, 西海岸과 南海岸의 距離를 생각할 때 到達하는 時間의 幅이 너무 넓다는 점을 생각하면 일른 納得하기 어려운 감이 든다. 또한 層位的으로 沈線文土器 以前 段階의 變遷過程을 보여주고 있는 南海岸地域의 特性과, 突然히 出現하고 있는 西海岸地域 沈線文土器와의 編年的인 關係는 遺蹟에서 나타나고 있는 炭素年代의 結果를 보다 慎重하고 細密한 檢討와 論理的 根據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Ⅲ. 絶對年代의 檢討

全面施文土器가 나타나고 있는 西海岸地域과 東海岸地域, 그리고 南海岸地域의 絶對年代와 이들간의 相互關聯性에 대하여 簡略히 살펴보고자 한다.

1. 西海岸地域

西海岸地域의 全面施文土器에 대한 絶對年代는 岩沙洞遺蹟 調査를 통하여 나타난 炭素年代의 結果에 의하여 推定할 수 있는데, 그 중 가장 이른 것으로는 1975年度 調査에서 $6,230 \pm 110$ B.P. $6,050 \pm 105$ B.P.로 나타났다¹⁷⁾.

一般的으로 尖底의 沈線文土器는 全面施文에서 점차 文樣의 施文部位가 口緣部쪽으로 縮小되는 時間的 變化過程이 나타나고 있는데¹⁸⁾, 이러한 現狀은 南海岸 水佳里遺蹟에서 層位的으로 나타나고 있는 傾向과도 一致하고 있다. 따라서, 이 年代는 全面施文 沈線文土器의 上限年代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西海岸地域의 일산 新都市 建設過程에서 調査되었던 가와지遺蹟에서도 全面施文土器의 年代를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資料가 確認되었다. 주엽리의 대화리層과 가와지 土炭層에서

16) 鄭澄元·林孝澤·申敬澈, 1981. 『金海水佳里貝塚』 I, (釜山大學校 博物館).

17) 國立中央博物館, 1995. 『岩沙洞』 卷2.

18) 任孝宰, 1986. 「土器의 時代的 變遷過程」 『韓國史論』 12, (韓國의 考古學 I·下: 國史編纂委員會).

尖底의 全面施文土器가 出土되었는데, 이 중 대화리層의 炭素年代는 $6,210 \pm 60$ B.P.로 나타나¹⁹⁾, 岩沙洞遺蹟에서 나타났던 全面施文段階의 年代와 거의 一致하고 있다. 또한 이 土器가 나타난 層位는 補正年代에 의하면 紀元前 6,000年紀 末期에 該當하므로 西海岸 中部地域 新石器時代 時期設定에 重要な 資料를 提供한다고 하였다²⁰⁾.

특히 西海岸地域의 調査에서 興味를 끄는 것은 이 地域에서 아주 發達된 土炭層의 形成 時期에 대한 調査인데, 前述한 대화리 土炭層의 絶對年代와 더불어 西海岸 高速道路 建設區 間에서는 平澤郡 포승면 내기리 土炭層이 $6,440 \pm 245$ B.P.의 絶對年代가 測定되어, 大略 6,500 B.P. 頃에는 現在の 海岸線까지 海水面이 上昇하여 늪지의 形成과 溫暖한 氣候 變化에 의하여 내기리 有機質 土炭層이 現 海水面 近處에서 形成되기 시작하였다고 하였다²¹⁾.

이러한 結果를 參考하면 海水面이 現位置까지 上昇하여 土炭層을 形成하는 時期와 全面 施文 沈線文土器 文化는 相互 關聯性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 南海岸地域

圖1에 나타나고 있는 것은 南海岸地域에서 지금까지 正式 調査되어 報告되었던 代表的 遺蹟의 層位를 나타낸 것으로 炭素年代가 測定되었던 層位와 結果도 모두 표기해 두었다.

앞에서도 이미 言及한 바 있지만 南海岸地域에서 가장 이른 時期의 炭素年代는 延世大學 校에서 調査하였던 上老大島 第V層에서 確認된 $6,430 \pm 180$ B.P.인데, 이 層位에서는 隆起文 土器나 押引文土器와 더불어 全面施文土器 上部文樣으로 使用되는 短斜集線文土器가 出土 되었다.

同一 層位에서 多樣한 時期의 遺物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가장 늦은 時期의 遺物을 基準로 생각하는 것은 當然할 것이며, 이 層位는 短斜集線文土器와 關聯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 다음으로 이른 時期의 年代가 測定된 것은 煙臺島貝塚 P~U Pit 第III層의 貝殼을 試 料로 한 것인데 $6,090 \pm 160$, $6,010 \pm 160$ B.P.로 나타났다. 이것은 이 遺蹟에서 貝殼層이 形成 된 年代로 볼 수 있으며, 당시 이 隣近 地域까지 海岸線이 形成되어 있었다는 것을 밝혀 주 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南海岸 貝塚遺蹟에서 測定된 貝殼層 중에서 가장 이른 年代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後氷期 以後 西海岸 地域의 海水面 上昇時期로 나타난 年代와도 상 당히 近接한 結果를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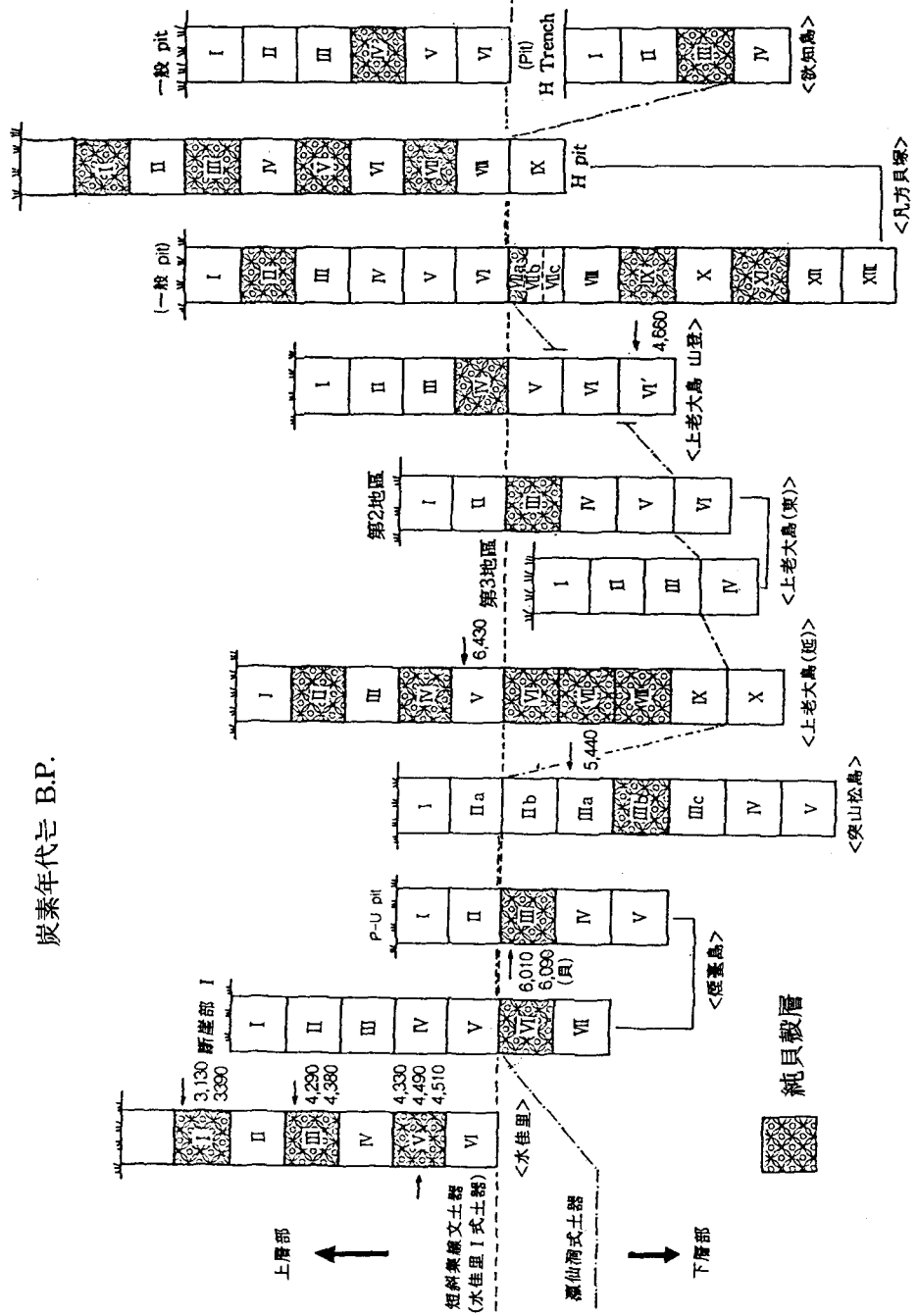
그러면 다음으로 西海岸式土器와 깊은 關聯性을 보여주는 沈線文土器 單一遺蹟으로 잘

19) 손보기, 장호수, 조태섭, 1992. 『자연과 옛사람의 삶-일산새도시 개발지역 학술조사보고-』 (한국선사 문화연구소) 1, 29-37.

20) 윤내현 외, 1992. 『일산3지역의 고고학조사』 『자연과 옛사람의 삶』 365.

21) 이동영·김주용·양동윤, 1995. 『제4기 지질 및 자연지형조사』 『서해안건설구간(안산-안중간)유적 발 굴보고서』 1, 17~95.

炭素年代 B.P.



〈圖 1〉 新産部 知城灣跡 層位圖

알려진 金海 水佳里遺蹟²²⁾을 檢討해 보고자 한다.

대체로 南海岸地域 貝塚에서는 여러 時期의 遺物이 뒤섞여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그 性格을 糾明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주고 있지만 水佳里遺蹟의 경우는 全面施文土器를 비롯한 沈線文土器 遺蹟이므로 이 文化의 性格과 年代를 理解하는데 重要한 資料로 認識되어왔다.

이 遺蹟은 모두 8個의 層位가 確認되었지만, 出土遺物은 第VI層에서부터 紹介되고 있다. 각 層位別 出土遺物은 圖2에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다.

報告者는 이 遺蹟을 모두 3個의 文化層으로 區分하고 있다. 이 중 第1文化層으로 區分하고 있는 第VI層과 第V層에서는 太線沈線文이 共通的으로 나타나고 있는 特徵을 보여주고 있으며, 第2文化層인 第IV層과 第III層은 太線沈線文樣의 要素가 사라지고 文樣의 施文幅이 胴體部에만 限定되어 나타나는 特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第II層과 第I層을 第3文化層으로 區分하였는데 文樣이 短斜線文, 또는 長斜線文으로 退化되거나 二重口緣土器가 登場하는 特徵이 나타나고 있다. 이 중 각 層位別로 測定된 炭素年代의 結果는 다음과 같다.

第I層(貝殼) 3,130±80 B.P.
第I層(貝殼) 3,390±70 B.P.
第III層(貝殼) 4,290±90 B.P.
第III層(貝殼) 4,380±70 B.P.
第V層(貝殼) 4,330±90 B.P.
第V層(貝殼) 4,490±70 B.P.
第V層(木炭) 4,510±105 B.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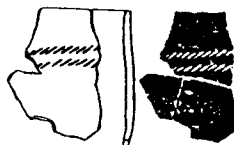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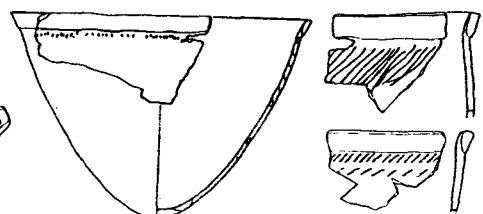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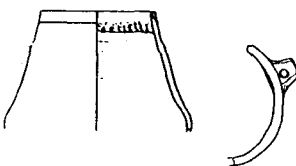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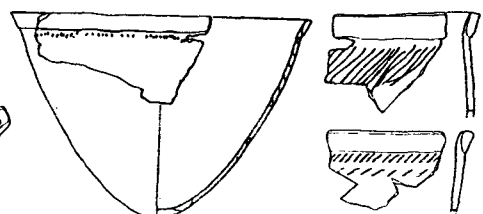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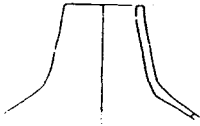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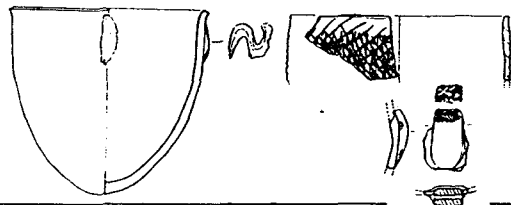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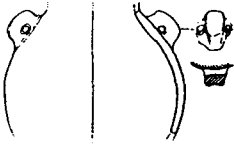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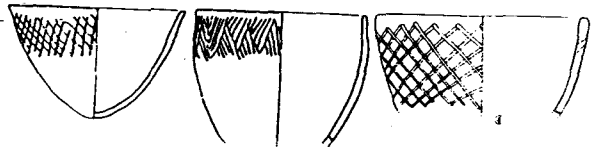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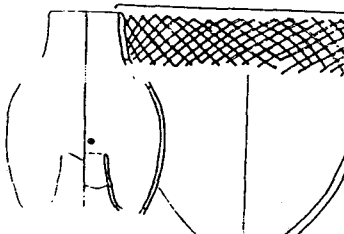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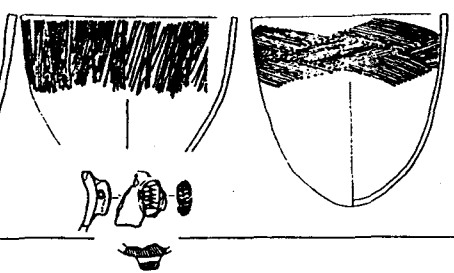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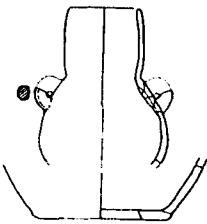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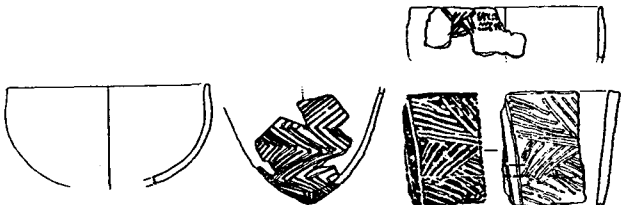
이 遺蹟에서 나타나고 있는 特徵으로 보아 第1文化層으로 區分한 第V層과 第2文化層으로 區分하고 있는 第III層은 型式의인 變化가 顯著하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不拘하고 炭素年代 測定値가 類似하게 나타나고 있어 報告者도 그 結果에 대하여 首肯하기 어렵다는 疑問을 表示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結果는 文化層 分類에 問題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圖2에 나타나고 있는 것은 筆者가 文樣의 施文部位에 의하여 새롭게 文化層을 區分한 것이다. 이 중 第1文化層은 全面施文 沈線文土器가 壓倒的으로 나타나고 있는 第VI層이다. 그리고 第2文化層은 文樣의 施文部位가 胴體部 쪽으로 縮約되는 第V-III層, 그리고 第1文化層은 文樣이 退化되면서 二重口緣土器가 登場하는 것으로 報告者의 區分과 같다.

第2文化層 中 第V層에서는 太線沈線文樣 要素가 나타나고 있으나, 이러한 太線沈線文 技法은 第2文化層과 第3文化層 사이의 段階로 생각되는 陝川 鳳溪里遺蹟에서도 나타나고 있어 상당히 오랜 期間 南部地方에서 存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²³⁾. 그러므로 水佳里貝塚 第V層과 第III層의 炭素年代가 큰 時期幅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은 어찌면 當然한 것으로 생각된다.

22) 鄭澄元·林孝澤·申敬澈, 1981. 『金海水佳里貝塚』(釜山大學校 博物館) 1.

23) 沈奉謹, 1989. 『陝川鳳溪里遺蹟』(東亞大學校 博物館).

層位		出土土器	
第3文化層	第I層		
	第II層		
第2文化層	第III層		
	第IV層		
	第V層		
第1文化層	第VI層		

〈圖 2〉水佳里貝塚 各層位別 出土 有文土器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바와 같이 南海岸地域이 全面施文 沈線文土器 文化의 絶對年代로 認定되어 왔던 水佳里 第V層의 年代는 全面施文 沈線文土器 以後의 段階인 第2文化層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다음 段階의 特徵을 잘 보여주고 있는 陝川 鳳溪里遺蹟 第9號 住居址에서 測定된 4,060±150 B.P의 年代²⁴⁾와도 잘 附合되고 있다. 따라서 水佳里遺蹟을 標識으로 設定된 南海岸 全面施文 沈線文土器의 絶對年代는 認定할 수 없으며 周邊地域과의 相互關係를 통하여 새롭게 檢討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3. 東海岸地域

東海岸地域에서 지금까지 正式調査되어 報告된 遺蹟으로는 鰲山里遺蹟이 있다. 이 遺蹟은 서울大學校 博物館팀에 의하여 1981년부터 1987년까지 모두 6회에 걸친 調査가 이루어 졌는데²⁵⁾, 그 結果 鰲山里式土器로 불리는 새로운 土器를 비롯하여 南海岸地域이나 西海岸地域과도 關聯이 깊은 各種 土器들이 層位的 特性을 달리하여 出土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全體的인 土器文化의 흐름을 理解할 수 있는 重要한 成果를 거두었다.

이 중 鰲山里式土器의 器形은 鉢形과 甕形 그리고 壺形土器로 區分할 수 있는데, 甕形土器는 把手部를 가진 것이 많고 壺形土器에서도 이러한 要素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 類型的 土器에서 나타나고 있는 特徵的 要素 中の 하나는 口脣部の 形態에 있다고 볼 수 있다. 口脣部 內緣에 段이 저 있는 것을 共通의 特徵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중에는 文樣構成上 南海岸遺蹟과 關聯있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어 南海岸地域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問題點들을 補完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遺蹟의 層位는 모두 6個로 區分되는데, 最下層인 第VI層은 순수 細系層으로 非遺物層이므로 文化層은 第V層부터라고 할 수 있다. 第V層은 다시 7個의 層位로 細分되는데, 各層位에서 모두 8個의 住居址가 露出되었으나 각 小層에서 나타난 遺物 內容上 뚜렷한 差異를 보이지 않아 이를 統合하여 單一 文化層으로 본 듯하다.

第IV層은 黃褐色 砂質層으로 非遺物層이고, 第III層은 第V層과 같이 平底 無文樣土器가 主體를 이루고 있는 層이다. 器形上으로 有頸壺가 增加하고 土器바닥이 더욱 넓어지며 無文樣土器의 懸隔한 增加를 特徵으로 삼을 수 있는데, 그 중에는 威鏡道 有文土器系統의 文樣을 施文한 것도 나타난다고 한다. 口緣部는 直立하고 口脣部는 곧게 잘려지는 形態로 胎土의 粒子는 굵어지면서 石英粒의 混入이 뚜렷하게 增加하는 것을 特徵으로 삼을 수 있을 것 같다²⁶⁾.

24) 渡邊 誠, 1990. 『鳳溪里遺蹟出土의 植物遺體』 『考古歷史學志』 (東亞大學校 博物館) 5·6.

25) 任孝宰·權鶴洙, 1984. 『鰲山里遺蹟』 (서울大學校 博物館) 9.

金元龍·任孝宰·權鶴洙, 1984. 『鰲山里遺蹟 II』 (서울大學校 博物館) 10.

任孝宰·李俊貞, 1984. 『鰲山里遺蹟 III』 (서울大學校 博物館) 13.

第Ⅱ層은 모두 西海岸式이나 南海岸의 水佳里 1式段階의 尖底形의 全面施文 沈線文土器들이 中心이다.

그리고 第Ⅰ層은 無文土器와 粘土帶土器, 그리고 組合式 牛角形把手部土器가 약간 發見되어 無文土器時代 末期의 것으로 보인다.

第Ⅴ層에서 出土된 鰲山里式土器는 이 遺蹟에서 가장 特徵的인 것으로 모두 6개의 小層으로 다시 細分되고 있으며, 炭素年代에 있어서도 1,000년 以上の 差異를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이 層에서 나타나고 있는 土器의 種類들은 比較的 多樣한 편이지만,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屬性 중에는 口緣部의 形態에 있어서 文樣이나 器形과는 共通性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上層部로 갈수록 壺形土器의 수가 늘어나고 底部가 넓어지며 無文樣土器의 수가 增加한다고 하는 基本的인 패턴이 있다고 報告되어 있는데, 여기에 準하여 口脣部의 形態에 의하여 圖3와 같이 5類型으로 分類하여 第1類型에서 第5類型으로 發展하는 것으로 보았다.

第1類形의 特徵은 口脣部가 안으로 각여 內緣部에 짧게 段을 두고 있는 것으로 이러한 特徵을 가진 것들은 주로 刺突文에 많이 나타나고 있다. 器形은 주로 鉢形이고 文樣構成에 있어서는 口緣部에 限定하여 平行點列文이나 鋸齒文을 施文하고 있다. 口脣部의 形態나 文樣構成에 있어서 同一文樣要素가 圖4에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南海岸 貝塚遺蹟에서도 나타나고 있어 隆起文土器와 第1類型 段階는 南海岸地域과 相互 關聯性이 認定된다. 특히 口脣部의 內緣이 안으로 段이져 있는 것들은 後期 隆起文土器나 바로 다음 段階로 생각되는 凡方貝塚²⁷⁾의 無文樣土器, 혹은 指頭文土器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 口脣形態라는 點을 注目할 만하다²⁸⁾.

그리고 施文技法에 있어서 半竹管狀의 道具로 押引하거나 끝이 둥근 施文具로 刺突文을 새기고 있는데 이러한 要素도 南海岸에서도 간혹 보이는 것이며, 連續N字文, 혹은 山形文²⁹⁾으로 불리는 鋸齒狀 文樣의 경우도 隆起文土器段階 이래로 계속 나타나는 文樣인데 주로 刺突文 系統으로 나타나고 있다. 全體的인 器形이나 口緣部의 特徵에 있어서도 類似한 것들이 많다.

第2類의 特徵은 이러한 第1類形에서 內緣部가 조금 發達하고 밖으로 뻗어나가 甕形으로 變化하고 있다. 第1類型과 같은 鋸齒狀의 文樣構成이 계속되나 刺突文의 單獨要素는 거의 사라지고 把手部가 달린 甕形土器가 등장하는데, 半竹管과 刺突施文에 끝이 납작한 施文具로 短斜集線文을 複合한 連續文樣이 나타나고 있다. 平底 鉢形土器와 把手部 甕形土器가

26) 任孝宰, 權鶴洙, 1984. 『鰲山里遺蹟』(서울大學校 博物館) 65-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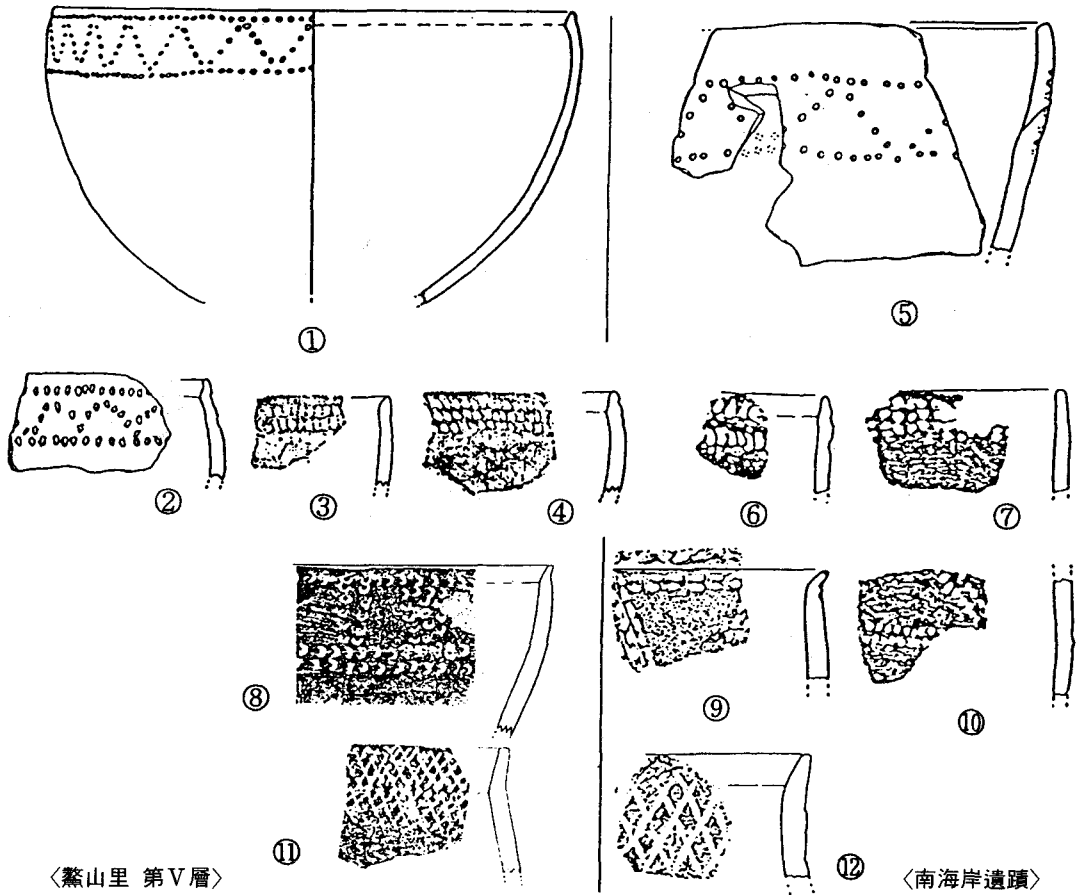
27) 河仁秀, 1993. 『凡方貝塚』(釜山市立博物館) 1.

28) 李東注, 1996. 『韓國 先史時代 南海岸 有文土器 研究』(東亞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40-150.

29) 河仁秀, 1993. 「前期 櫛目文土器의 一型式-山形文土器의 設定과 編年-」 『博物館 研究論文集』(釜山市立博物館) 2.

出土遺物	
第5類型	
第4類型	
第3類型	
第2類型	
第1類型	

〈圖 3〉 繁山里遺蹟出土 土器の口緣部型式別 分類



〈圖 4〉 鰲山里遺蹟出土 有文土器와 南海岸遺蹟과의 比較
 (⑤ : 上老大島 上里貝塚, ⑥⑦⑨⑩⑫ : 凡方貝塚)

나타나고 있는데 第3類形은 이러한 口緣部의 特徵이 더욱 發達하여 內緣部에 넓게 段을 形成하거나 이러한 段이 밖으로 꺾여 甕形土器에서 頸部를 가진 壺形土器로 發展한다. 이 段階에는 押引系 短斜集線文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점을 特徵으로 삼을 수 있을 것 같다. 文樣의 施文道具로는 끝이 세모진 押捺文樣이 附加되며 底部의 幅도 점점 넓어진다. 第2類形과 第3類形이 鰲山里土器의 特徵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第4類形은 鰲山里形土器의 特徵인 口脣部의 形態가 거의 사라지고 끝이 둥글거나 뾰족한 形態로 變化한다. 頸部는 完全한 壺形土器로 變化가 일어나는데, 胴體幅에 비하여 底部가 넓은 平底의 壺形土器가 나타나고 把手의 位置가 頸部쪽으로 移動하는 變化가 나타나고 있다. 주로 短斜集線文樣 中心으로 變化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도 重要한 特徵으로 指摘할 수

있었는데, 이 文化 다음 段階에 南海岸式이나 西海岸式의 短斜集線文土器가 中心이 되고 있다는 점을 勘案하면 過渡期的인 것, 혹은 祖形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 遺蹟에서 나타난 각 層位別 炭素年代는 第Ⅰ層에서 採集한 木炭에서 $3,360 \pm 180$ B.P.로 나타났고³⁰⁾, 第Ⅴ層에서는 $7,120 \sim 5,740$ B.P.의 年代가 測定되었다³¹⁾.

第5次 調査에서는 尖底土器遺構의 炭素年代가 $4,360 \pm 50$ B.P.로 나타났고 이 보다 아랫層에 있는 積石遺構에서는 $5,690 \pm 120$ B.P.로 나타났다³²⁾. 이 積石遺構는 Ⅴ層보다는 늦은層으로 보고 있다.

第6次 調査에서는 最下層에서 多數의 平底土器들이 出土되었다고 하는데 이 層에서 採集된 木炭의 炭素年代는 $12,000 \pm 50$ B.P.로 나타났다. 이 年代는 우리나라 新石器遺蹟에서 나타나고 있는 年代 중 가장 이른 것으로, 이 遺蹟에서 나타나고 있는 遺物과 對比한다면 鰲山里式土器가 中心을 이루는 第Ⅴ層의 年代는 대략 B.P. 7,000~6,000년까지 集中되고 있어, 이보다 이른 段階에 該當하는 隆起文土器의 年代와 關聯될 것으로 判斷된다.

이상 概略의으로 살펴보았던 점들을 통하여 몇가지 점에서 重要히 다루어야 할 部分이 있다.

첫째로 우리나라 最古의 炭素年代가 檢出되었고 그 文化는 前述한 바와 같이 隆起文土器와 關係될 可能性이 있다는 점이다.

둘째, 鰲山里式土器의 가장 이른 段階로 編年한 第1類型은 圖面4에서 살펴보았던 것과 같이 南海岸新石器文化와 關聯性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³³⁾.

셋째, 性格이 比較的 單一한 特徵을 나타난 鰲山里式土器의 絶對年代가 明確해 졌다는 점인데, 이 遺蹟에서 나타난 第Ⅴ層의 下限年代가 沈線文土器를 特徵으로 하는 西海岸 岩沙洞遺蹟의 上限年代와 連結될 수 있기 때문에 相互關聯性을 檢討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30) 任孝宰·權鶴洙, 1984. 『鰲山里遺蹟』 (서울大學校 博物館) 65.

31) 각 層位別로 나타난 測定年代는 다음과 같다(試料는 木炭).

V-①層	KSU-492	7120 ± 700	B.P.
V-①層	KSU-494	6780 ± 1000	B.P.
V-②層	KSU-619	6080 ± 210	B.P.
V-③層	KSU-620	5740 ± 210	B.P.
V-⑦層	KSU-616	6130 ± 50	B.P.
Ⅵ層	KSU-615	6070 ± 30	B.P.
B地區	KSU-515	7050 ± 120	B.P.

32) 任孝宰·李俊貞, 1988. 『鰲山里遺蹟 Ⅲ』 (서울大學校 博物館)

33) 鰲山里式土器의 第1期 段階가 南海岸文化와 關聯이 있다는 사실은 金壯錫, 河仁秀氏의 論文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現在 거의 一般의 見解로 자리잡고 있는 것 같다.

金壯錫, 1991. 『鰲山里土器의 研究』 (서울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63.

河仁秀, 1995. 「鰲山里土器의 再檢討」 『博物館研究論集』 (釜山廣域市立博物館) 141-175.

IV. 沈線文土器 文化의 展開

全面施文 沈線文土器의 地域的 相關關係를 明確히 하기 위하여 이 土器의 起源問題에 대하여 우선 檢討해 보고자 한다.

全面施文 沈線文土器의 特徵 中에는 尖底의 器形 뿐만 아니라 土器 上段部에 押引系의 短斜集線文樣이 施文되는 것을 아주 큰 特徵으로 볼 수 있고, 下段部에는 魚骨文이,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沈線 格子文이나 三角集線文, 押引 點列文등이 弧線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文樣의 發生過程을 糾明한다면 沈線文土器의 源流問題와 展開過程을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西海岸地域의 경우 全面施文 沈線文土器 以前 段階의 文化들이 糾明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祖形으로 생각할만한 資料들이 發見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아주 發達된 土器文化가 突然히 漢江流域이나 大同江流域에 登場하는 傾向을 보이고 있고, 이와같은 現狀은 南海岸地域에서도 類似한 느낌을 주고 있다.

南海岸地域의 경우, 瀛仙洞式 押引 魚骨文土器를 特徵으로 하는 段階 以後에 突然히 尖底의 短斜集線文을 가진 全面施文土器가 登場하는데, 이와 더불어 壺形의 把手部土器가 登場하고 있어³⁴⁾ 새로운 文化의 流入現狀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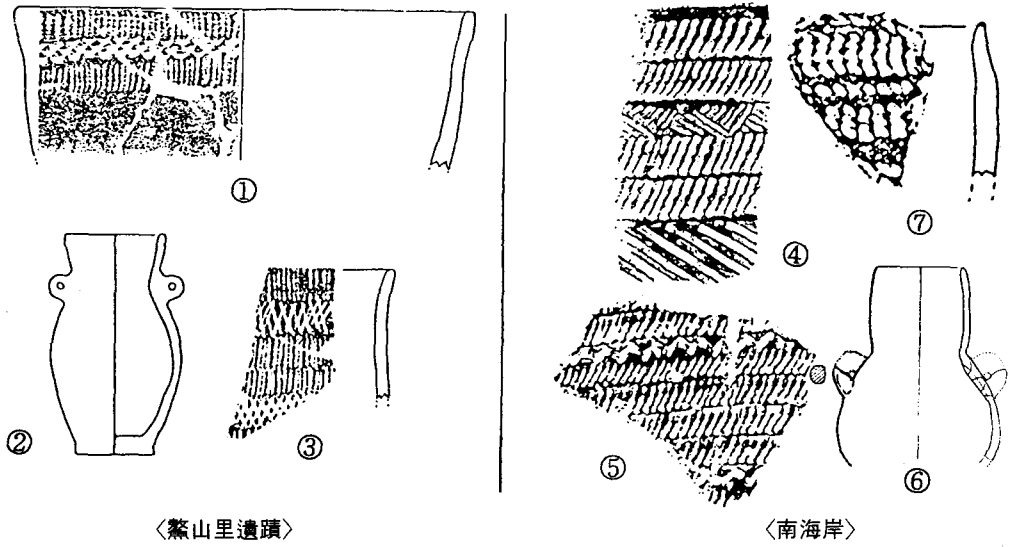
그런데, 이러한 土器의 特徵을 나타내면서 時期的으로 앞서는 遺蹟으로 鰲山里式土器文化를 생각할 수 있는데, 圖5에 나타나고 있는 것은 鰲山里式土器 第4, 5類型과 南海岸의 短斜集線文土器를 比較한 것이다.

鰲山里式土器는 특히 短斜集線文의 施文具가 톱니날과 같은 多齒具를 使用하고 있으며, 文樣의 施文方法도 一般的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과 같이 비스듬히 施文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垂直으로 곧바로 세워져 있다. 특히 文樣의 構成에 있어 短斜集線文만 施文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가운데 格子文과 같은 附加文樣이 새겨져 區劃을 이루고 있다. 南海岸의 多大浦遺蹟과 東三洞遺蹟에서 出土된 短斜集線文土器의 경우를 보면 가운데 三角集線文이나 格子文으로 區劃을 정하고 있어 同一技法을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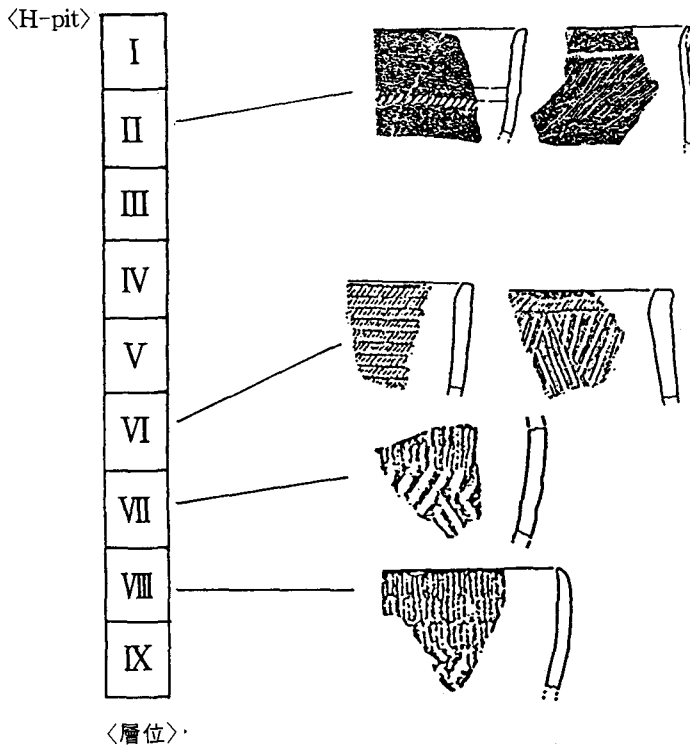
그리고 圖6에 나타나고 있는 것은 凡方貝塚 H Trench에서 層序的으로 나타나고 있는 短斜集線文土器이다. 下層에서 나타나고 있는 短斜集線文土器는 水佳里1式段階의 短斜集線文과는 差異가 있다.

우선 口緣部가 뽀족한 形態를 하고 있으며 短斜集線文樣도 斜線方向이 아니라 鰲山里式土器와 같이 垂直으로 施文되어 있다. 短斜集線文의 下部에 있는 魚骨文도 太線沈線文이 아니라 押引文系統이며 口緣部의 形態에 있어서도 瀛仙洞式 押引文土器 段階의 特徵과 같다.

34) 壺形土器는 원래 瀛仙洞式 土器文化의 特徵에 속하는데 把手部는 나타나지 않는다.



〈圖 5〉 鰲山里遺蹟出土 短斜集線文土器와 南海岸 土器와의 比較
 (①③ : 第3層, ② : 第5層, ④ : 東三洞, ⑤ : 多大浦, ⑥ : 水佳里, ⑦ : 瀛仙洞)



〈圖 6〉 凡方貝塚의 層位에서 나타나고 있는 短斜集線文土器와의 層位的 關係

따라서 이러한 樣式은 短斜集線文土器의 初期樣式에 該當한다고 볼 수 있으며, 鰲山里式 土器의 後期 段階과 關聯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하나 特技할만한 사실은 把手部壺에 관한 것이다. 把手部壺는 鰲山里式土器 2類形에 該當하는 甕形土器에 이미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現在까지 이 時期 以前 段階에 南海岸에서는 把手部土器가 存在하지 않았으며, 突然 短斜集線文土器가 登場하면서 把手部壺도 같이 나타나고 있다. 물론 壺形土器는 隆起文土器 段階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押引文土器 段階에 가장 盛行하는데 이들 土器에 把手部는 現在까지 發見된 바 없다.

따라서 이러한 諸般 事項을 살펴보면 鰲山里 下層式土器의 影響에 의하여 把手部土器와 短斜集線文土器가 傳來된 것이 現在의 資料로 살펴볼 때 그러한 推定이 可能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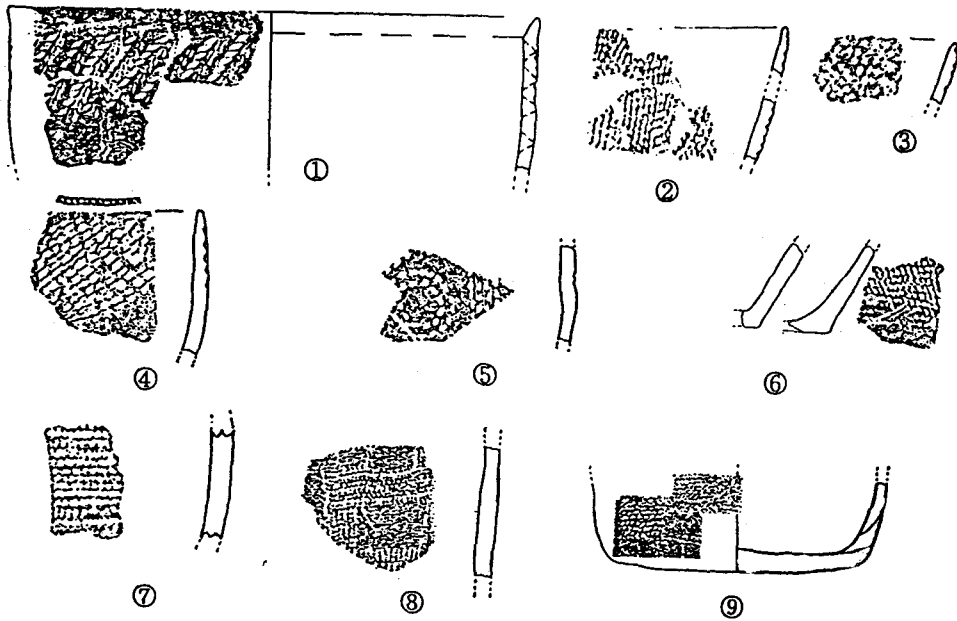
다음으로 南海岸地域과 西海岸地域과의 關係에 대하여 檢討해 보고자 한다.

앞에서도 이미 言及했던 바와 같이, 全面施文 沈線文土器의 特徵 중에는 尖底의 器形 뿐만 아니라, 土器 上段部에 押引系의 短斜集線文樣이 施文되는 것과 下段部에는 魚骨文이, 그리고 그 가운데 胴體部에는 沈線 格子文이나 三角集線文, 또는 押引 點列文등이 弧線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文樣의 發生過程을 糾明한다면 沈線文土器의 源流問題와 展開過程을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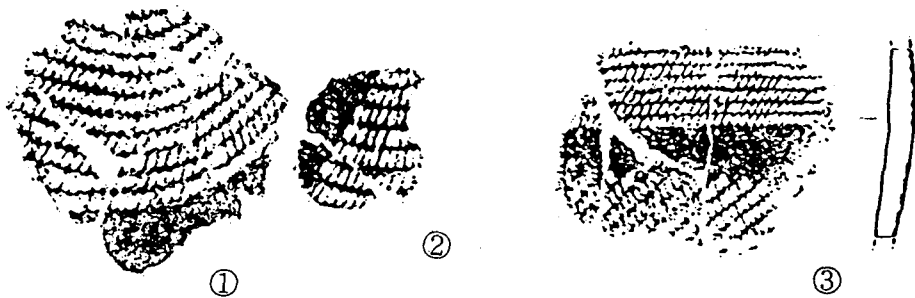
南海岸地域에서는 隆起文土器 以後 刺突文樣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刺突文은 押引文土器 段階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폭넓은 時期에 걸쳐 使用되고 있는 施文技法인데, 圖7에 나타나고 있는 것은 沈線文土器 以前, 押引文土器 段階의 것으로 推定되는 것들을 모은 것이며, 圖8에 나타나고 있는 것은 釜山 朝島貝塚에서 出土한 것으로 短斜集線文樣과 類似한 押引文이 上部에 나타나고, 下部에는 弧線狀, 혹은 圓卷狀의 押引 刺突文이 施文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文樣의 土器에는 圖7에 나타나고 있듯이 底部의 形態가 平底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圖9는 中部地方의 休岩里遺蹟에서 出土한 것으로 圓卷狀의 刺突押引文樣인데, 이 土器와 더불어 瀛仙洞式 押引魚骨文 土器가 共伴되고 있어 刺突文土器와 瀛仙洞式土器의 關係를 理解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圖10에 나타나고 있는 것들은 西海式 沈線文土器의 中心遺蹟이라 할 수 있는 서울 岩沙洞遺蹟 出土 刺突押引文 土器이다. 이 역시도 南海岸地域과 같이 平底形에 圓卷狀의 文樣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圖11의 上段部에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同一 文樣이 施文된 西海岸의 智塔里遺蹟에서는 底部의 形態에 있어서도 南海岸 押引文土器와 같은 圓底形이거나 平底形을 하고 있어 相互關聯性을 充分히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따라서 이러한 文樣의 土器는 南海岸地域에서 短斜集線文土器 樣式보다 先行하는 것임이 明確하다고 생각되므로, 沈線文土器 以前 段階의 影響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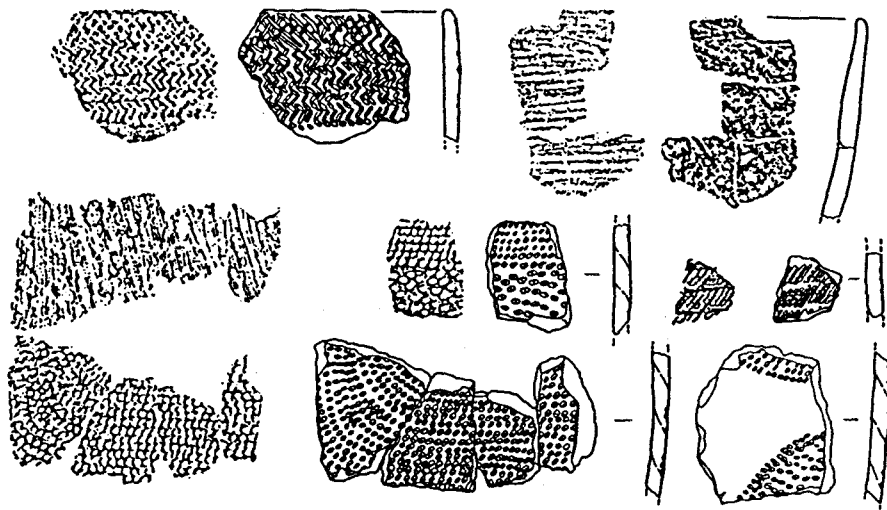


〈圖 7〉 南海岸地域出土 繩文押印樣式을 보이는 刺突文土器
 (①~③) : 煙臺島, ④⑧⑨ : 欲知島, ⑤ : 凡方, ⑥ : 突山松島, ⑦ : 鰲山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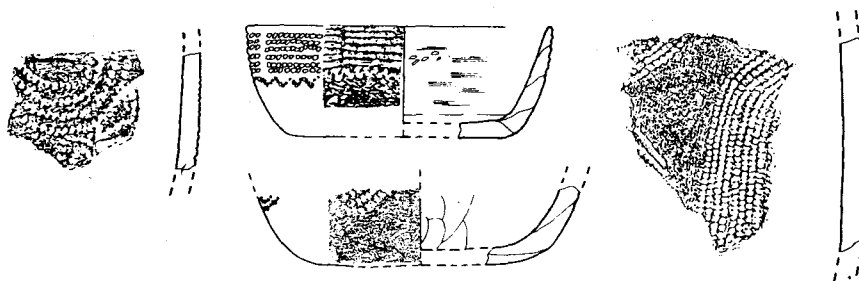


〈圖 8〉 朝島貝塚出土 押印刺突文土器

그리고 이러한 圓卷狀의 刺突押引文樣 외에 胴體部 文樣으로는 三角集線文이나 格子文, 鋸齒文樣들이 종종 나타나고 下部에는 魚骨文樣이 있는데, 이러한 沈線文樣 要素들은 隆起文土器 段階로부터 後期 新石器 段階까지 南海岸 遺蹟에서 가장 一般的으로 施文되는 文樣 要素이고, 沈線文土器 以前 段階에 南海岸地域에서 流行했던 押引魚骨文도 沈線文土器의 下部文樣으로 變遷하였을 可能性도 充分히 豫想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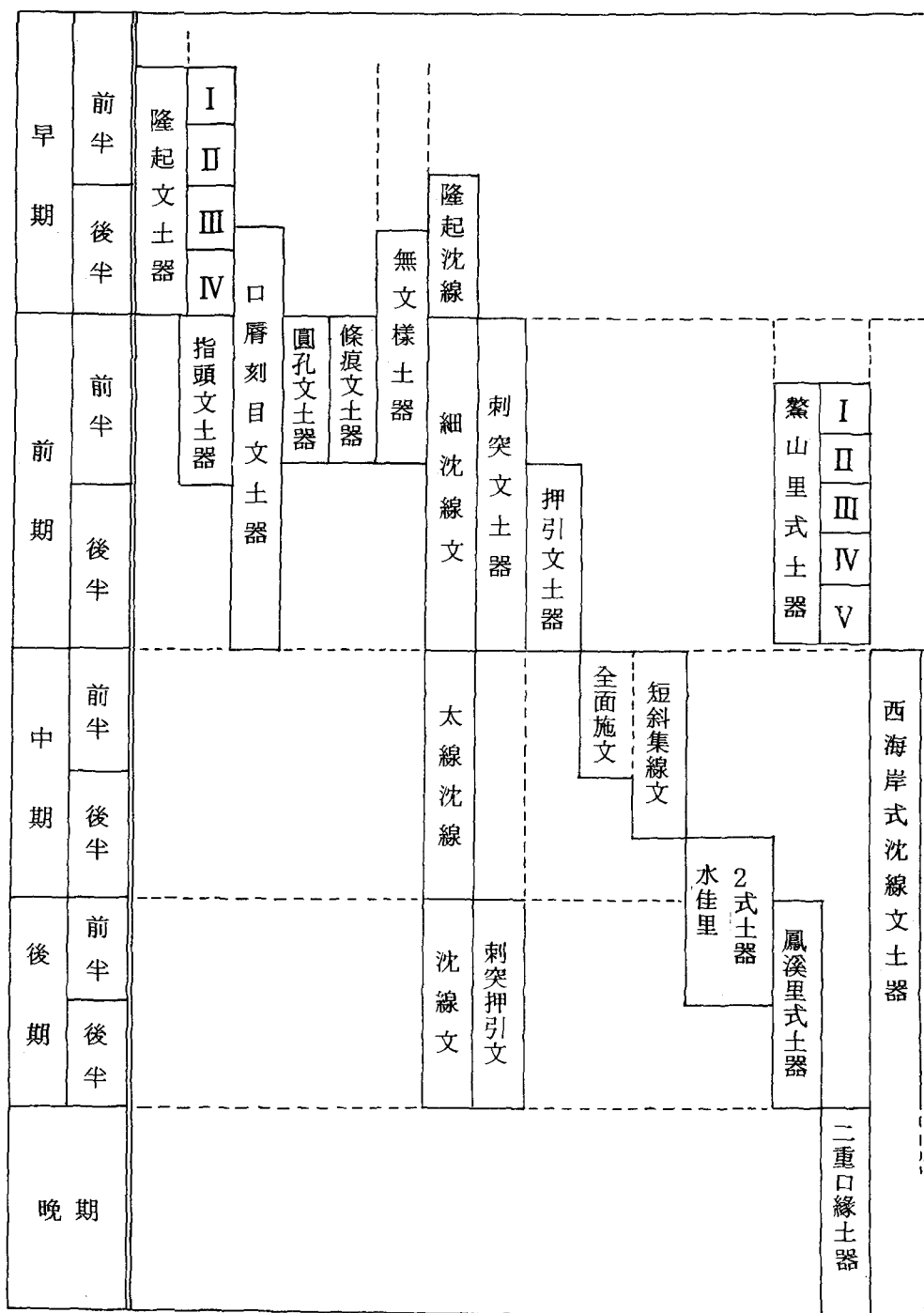


〈圖 9〉 休岩里遺蹟出土 有文土器



〈圖 10〉 서울 岩沙洞遺蹟 出土 刺突押印文土器
(①④ : 第1號 住居址, ② : 第10號 住居址, ③ : 第7號 住居址)

따라서 西海岸式 沈線文土器는 鰲山里式土器의 直接的인 要素보다는 南海岸과 共通點이 많다고 볼 수 있으며, 南海岸의 경우에는 이른 段階의 것이 東海岸地域과 共通點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등식이 成立된다. 이러한 觀點에서 沈線文土器의 發生과 交流關係를 생각해 보면, 東海岸을 거쳐 내려온 短斜集線文樣은 瀛仙洞式 押引文土器 段階의 南海岸 圓底土器 文化에 複合되면서 西海岸地域으로 波及되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圖 11〉 南海岸地方 新石器時代 有文土器 編年表

V. 맺음말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全面施文 沈線文土器 文化의 上限年代를 알아보기 위하여 西海岸과 南海岸, 그리고 東海岸地域에서 가장 이른 時期로 볼 수 있는 代表的 遺蹟과, 炭素年代 測定 結果들을 살펴보고 相互 比較해 보았다. 그 結果, 過去 南海岸 全面施文 沈線文土器의 年代로 알려져 왔던 金海 水佳里遺蹟 第1文化層의 年代는 第2文化層에 該當하는 것으로, 層位 解析上 問題點이 있음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一般的인 見解와 달리, 南海岸의 沈線文土器의 年代는 西海岸地域과 큰 差異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 時期는 대략 6,000 B.P. 직 전으로 後水期 이후 海水面이 現水準까지 上昇하는 時期와 關聯이 있는 듯하다.

이러한 同時期的인 結果를 基礎로하여 이 土器文化의 發生과 展開過程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全面施文 沈線文土器의 特徵은 器形이 尖底形이고 口緣部에서 底部까지 모두 2~3部分으로 文樣이 區分되어 施文되는데, 上段에는 押引系 短斜集線文樣이, 胴體部에는 沈線의 三角集線文樣이나 格子文, 鋸齒文, 또는 押引刺突文樣이 圓卷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底部에는 魚骨文이 施文되고 있다. 이러한 特徵的인 文樣의 系統을 살펴보면 그 源流問題가 糾明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重點을 두었던 것은 短斜集線文樣인데, 이 要素는 西海岸과 南海岸地域의 以前 段階에는 없었던 새로운 要素로 沈線文土器의 擴散과 더불어 急激히 流行는 現狀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 文樣은 層位的으로나 絶對年代에 있어서 沈線文土器 以前 段階의 것임이 明確한 東海岸 鰲山里式土器에서 系譜를 찾을 수 있는데, 톱날과 같은 多齒具를 利用하여 垂直으로 押引한 短斜集線文樣을 만들며, 그 사이에 格子文과 같은 附加文樣이 施文되고 있다. 그리고 把手部를 가진 壺形土器를 共伴하고 있는데, 이러한 諸般特徵을 가진 것들이 南海岸地域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層位的으로도 典型的인 短斜集線文樣보다 先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沈線文土器 段階에 突然히 南海岸地域에 把手部를 가진 壺形土器들이 登場하고 있다는 점도 이러한 東海岸文化의 擴散過程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또 하나의 重要的 點은 鰲山里式土器의 底部가 平底인데 반하여 沈線文土器는 尖底, 또는 圓底形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理由는 이 土器文化가 南海岸地域으로 擴散되면서 圓底인 瀛仙洞式 押引文土器 後期文化和 複合되고, 그 過程에서 南海岸의 特徵的인 文樣要素들과 器形이 結合하여 發展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定立된 文化는 다시 中西部地域으로 擴散되면서 南海岸地域의 特徵的인 三角集線文이나 格子文, 그리고 平底形을 가진 圓圈狀의 押引刺突文들이 全面施文 沈線文土器에 나타나게 되었을 것으로 생각하며, 底部의 魚骨文도 瀛仙洞式 押引文土器의 變形過程에서 나타난 것이 아닐까 推定된다.

종합하면 過去 빗살무늬土器로 널리 알려졌던 全面施文 沈線文土器는 東海岸 鰲山里式土器 文化가 南海岸 地域의 押引文土器 文化와 複合되면서 다시 西海岸地域으로 波及된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東海岸地域 文化의 擴散背景에는 鰲山里式土器 文化에 나타나고 있는 石刀나 磨製石錘, 結合式釣針같이 아주 發達된 磨製石器文化를 생각할 수 있는데, 磨製石刀와 같은 것은 아주 特徵的인 것으로 欲知島³⁵⁾나 凡方貝塚³⁶⁾과 같이 南海岸의 여러 遺蹟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結合式釣針과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諸般遺物들을 통하여 보더라도 兩地域間의 交流關係를 잘 證明해 주고 있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本文에서는 言及되지 않았지만, 沈線文土器 文化는 보습形石器和 같은 農耕具를 共伴하고 있으며, 石鏃에 있어서도 打製에서 磨製로 變化하는 特性이 나타나고 있다. 一般的으로 刃部를 必要로 하는 石器의 경우에도 磨製化의 比率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러한 諸般 特性은 直·間接的으로 農耕文化를 基盤으로 하는 中國 東北地方과도 關聯性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면, 沈線文土器 初期段階에 나타나고 있는 刺突 押引文土器 중에는 타레文樣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것도 시베리아地域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要素로서 地域別로 發達된 文化의 要素는 相互 交流過程에서 서로 影響을 주고 받으면서 發展되어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結果를 통하여 東海岸이나 西海岸, 南海岸地域의 沈線文土器 文化는 編年上 同一線上에서 理解되어야 하고, 따라서 南海岸地域에서 層位的으로 沈線文土器의 下層 段階로 證明되고 있는 多樣한 型式의 有文土器文化는 編年上 지금까지 생각하던 것보다 훨씬 거슬러 올라갈 것으로 생각된다.

35) 國立晉州博物館, 1989. 『欲知島』.

36) 河仁秀, 1996. 『凡方貝塚 II』(釜山廣域市立博物館).